

《다녀왔습니다》 저자 윤주희 씨

폭식증에 시달리던 네덜란드 입양아에서 다시 한국인으로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7세 때 네덜란드로 입양된 후 거식증과 폭식증을 반복하며 힘든 청소년기와 20대를 보낸 윤주희 씨. 그가 자전 에세이 《다녀왔습니다》를 들고 다시 한국을 찾았다. 17세 때 한국의 가족을 찾아 귀국했던 그녀는 이후 10년 간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며 20대를 보냈다. 4년간의 힘든 치료과정을 거쳐 2004년 네덜란드에서 책을 펴내고 폭식증을 90% 치유했다.

7살 때 입양되었기에 비교적 한국에서의 기억이 많이 남아 있던 윤 씨는 어린 시절의 한국 풍경과 가족들의 모습 등도 책에 묘사했다.

“네덜란드 가족들은 책 출판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펴낸 책에는 아빠의 성적 학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나오는 책에는 모든 것에 솔직하고 싶었어요.”

올해 초 다섯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그는 영구 귀국을 결심했다. 입양 10년 만이던 17살에 네덜란드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그는 한국 가족들과 언어 소통이 되지 않자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고, 일 년 뒤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 다시 방문했을 때는 소속감 결여로 고통스러워 하다가 네덜란드로 돌아갔다. 그때마다 그의 정신적 공허함을 달랜 것은 엄청난 양의 음식이었다. 12살부터 일 년 동안 거식증에 시달렸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니면서 거식과 폭식을 반복하는 섭식장애를 겪었다. 이 시기에 그는 단 몇 달 사이에 24kg이었던 몸무게가 60kg까지 늘어나는 경험을 한다.

직접 지은 책 제목 《다녀왔습니다》는 한국 사회가 자신과 같은 해외 입양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길 바라는 윤 씨의 작은 소망이 담겨 있다. 문화와 언어 장벽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모국 문화에 속하지 못하는 입양아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출간된 책 제목은 “드디어 진짜 생이 시작되었다”였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는 네덜란드 사회에서 폭식증을 고백한 용기있는 여성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다녀왔습니다》를 통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폭식증’에 사회적 관심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다. 서구 국가들과 달리 폭식과 거식 전문 치료병원과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어떤 나라에서건 거식과 폭식증 환자들은 함께 발생합니다. 한국은 다이어트에 열중하는 여성들이 많은 만큼 폭식증 환자들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경험이 이러한 환자들의 전문 병원 설립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능숙한 한국어 실력이 아니라며 조금 더 언어공부를 한 다음에는 강연활동 등을 통해 경험을 나누고 한국에 뿌리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청량리 다일 공동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 유기농 음식과 건강관리에 관련한 책을 쓰고 싶다고 밝혔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치도 않는 폭식을 하면서 폭식이라는 감옥에 나를 가뒀었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졌어요.” ■■